43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1~11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암송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반 친구가 장난도 많이 치고, 분반 시간에 많이 떠들어 수업에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공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다음 빈 칸을 알맞게 채워 넣어요.

나는 ☐☐☐☐요 너희는 ☐☐니 (요한복음 15:5)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표 해보세요.

(　　)

(　　)

동민이가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반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 보고 특징을 적어 보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알아볼까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이 세종류의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특징적인 식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지가 길게 늘어진 나무로서 따뜻한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날로 먹거나 건포도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료수였던 포도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일단 포도가 익으면 거두어 포도즙 틀에 넣고 즙을 짰는데 옛적에는 주로 발로 밟아서 즙을 짜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포도즙은 질그릇 항아리나 염소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시켰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그 열매인 포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 쓰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제 안에 있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란

선생님란